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심은신 이 동 훈*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여중생들의 우정집단 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울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중학교 여학생학급에 속한 1학년 여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 척도, 의도귀인 척도, 또래동조성 척도, 또래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 의도귀인,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정관계 질투는 의도귀인,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귀인은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동조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관계 질투가 의도적 귀인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정관계 질투가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여중생, 우정관계 질투, 관계적 공격성, 의도귀인, 또래동조성

청소년기는 어느 때보다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친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경험하는 사회적·정서적 기반으로, 청소년은 또래집단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며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

킬 수 있다(Parker & Asher, 1993). 우정관계는 대표적인 또래관계로서, 비교적 적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관계로 일반적인 또래관계에 비해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높다(신재은, 2000). 또래들과의 우정관계 질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 교신저자: 이동훈, E-mail: dhlawrence05@gmail.com

* 본 원고는 심은신(2011)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적응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명선, 2005).

그렇지만 또래와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로움, 심리사회적 문제, 소외감 등이 유발된다. 또래집단 내에서 우정관계를 거부당하거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발생하는 적개심은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기술을 익히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전주연, 이은경, 유나현, 이기학, 2004). 우정관계에 제삼자의 개입으로 삼자관계가 성립하면 기존의 우정관계는 제삼자로 인해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분노, 공포, 애정, 자존심, 경쟁의식 등이 결합된 정서 상태인 우정관계 질투 정서가 발생하며(Volling, McElwain, & Miller, 2002), 질투 정서는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우정관계 질투는 청소년기 질투의 전형으로(배재현, 최보가, 2007), 또래집단 내 제삼자와 더욱더 강한 새로운 우정관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친구를 무시하거나 외롭게 만들 수 있고(Roth, 2002), 관계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Hansen, 1991), 우울한 생각이나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하며(Lavallee, Parker, & Walker, 2002), 대인 간 혹은 대인 내 부적응을 일으키는 등(Roth, 2002)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질투 유발 빈도와 강도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 질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Parker & Walker, 2003). 14~17세에는 친구관계에서 동성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내며(장휘숙, 2004), 여러 관계 질투 중에서도 동성친구 간에 질투심이 유발되었을 때 부정적 행동경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Parker & Low, 1999)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동성과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는 청소년들

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우정관계 질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공격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공격성은 크게 표현방식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한다. 외현적 공격성이 누구를 치거나 미는 행동 같은 신체적 공격, 혹은 타인을 때려눕히려는 위협 같은 언어적 공격이라면,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어느 집단에서 한 아동을 고의로 빼 버린다가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가 해서 우정을 해치려는 행동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1996).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하고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하는데(최지영, 허유성, 2008), 청소년들은 사회적 비난을 지각하고 두려워하여 공격적인 행동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간접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은 증가한다(박민정, 최보가, 2004).

우정관계 질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별이다. 동성친구와의 우정관계에 대한 긴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자주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Roth, 2002).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Biggs와 Parker(2001)의 연구와 5-8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Parker, Walker와 Gamm(2002)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우정관계 질투를 나타냈고, Roth(2002)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정관계 질투의 경험 및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Walker와 Parker(2001)는 또래보고 질투평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질투평판이 더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학생들은 우정관계 악화의 주요인으로 타인에 의해 기존의 우정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드는 반

면(Ludlow, Hartmann, George, Maianu, Abbott, & Ward-Anderson, 1999), 남학생들은 관심사의 변화를 들고 있어, 모든 청소년들이 질투를 경험하지만 여학생들이 우정관계 질투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추측된다(Ludlow et al., 1999).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점적·배타적인 우정관계를 형성하며(신재은, 2000), 소집단 형태로 관계가 형성되고, 남학생보다 깊고 친밀하며, 관계지향적인 속성을 지녔다(Parker & Asher, 1993). Lever(1976) 또한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가 제삼자인 친구에게 몰두하게 되는 질투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여학생들의 이러한 우정관계 특성은 관계적인 공격현상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Parker & Asher, 1993).

한국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계적인 괴롭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민정, 박혜원, 2006),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따돌림의 현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학교현장에서의 왕따나 집단괴롭힘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높아 친구가 중요한 행복구성요인으로 나타나는 연령대이며(전경숙, 정태연, 2009), 질투 정서에 민감한 여중생들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는 이후의 발달과정이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질투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이러한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떠한 인지전략으로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부적응 극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적응적 정서에 더욱 빠지기도 한다(배재현, 최보가, 2006, 2007). 우정집단 내에서 또

래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귀인은 타인 행동의 관찰을 통해 그 행동의 원인을 찾는 인지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한유진, 최나야, 2004), 이는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의도귀인이 또래관계에서 부적응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도귀인은 원인제공자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의도적인 것으로 잘못 추론하는 것으로(Quiggle, Panak, & Dodge, 1992), 적대감이나 과제개입수준, 학대경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이정숙, 2009; 안도용, 1995). 임승렬(1996)도 공격적인 아동이 가진 문제를 그의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의 부족, 또는 성격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공격적인 아동은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의 왜곡이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선택적 기억으로 인해 그들이 귀인적 모호성을 띠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부적절하게 추론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Averill(1983)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것이라고 평가할수록 분노의 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Graham, Hudley와 Williams(1992)는 인지적인 귀인에 의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공격적인 아동이 비공격적 아동에 비해 통제가능한 원인과 책임을 더 많이 추론하고 더 많이 변명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상황을 해석하는 인지적 측면에 따라 행동반응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유추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Dodge와 Crick(1980)은 만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의 의도성 귀인의 비교를 통해 적대적 의도에 귀인할 때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며 공격적인 아동은 모호한 도발상태에서 적대적 의도에 귀인하는 귀인편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 후속 연구(Dodge & Crick, 1990)를 통해 적대적 의도귀

인은 분노나 폭력행동과 같은 반응적 공격을 야기 하며, 적대적 의도귀인과 공격적 아동의 보복적 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우울이나 부정적 자기개념, 공격성으로 연결이 된다(김은경, 이정숙, 2009; 이명원, 김중술, 신민섭, 2003; Coie & Dodge, 1998; Dodge, 1987; Dodge & Coie, 1987; Garnefski, 2002;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또한 우정관계 질투는 질투가 유발된 상황에 대한 원인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관련된 정서가 다를 수 있는데(배재현, 최보가, 2006), 이는 질투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상황에 대한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 즉, 의도귀인이 중요함을 보여준다(Kristen, 2003). 청소년기의 귀인양식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해서 여중생의 우정관계에서의 질투 정서가 의도귀인과 관련하여 공격성을 유발하는 과정에 기여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단짝친구보다 5-8명 이상의 친구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함께 어울려서 노는 소집단친구가 있는 청소년(97.67%)이 소집단친구가 없는 청소년(2.33%)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정미, 김미란, 2003). 이는 청소년의 우정관계를 만들어내는 또래집단의 패턴을 잘 보여주며, 청소년에게 있어 우정으로 맺어진 소집단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서적 배경임을 말해준다. 또래집단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태도, 행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또래집단의 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또래동조성이다. 이는 영향력을 가진 집단의 가치나 행동 등이 개인의 신념과 달라도 개체로 하여금 집단에 일치하게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집단에서나 이러한 집단의 압력과 동조는 발견된다(임원선, 2008). 집단의 압력은 사회관계로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규범적 영향력을 받게 되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집단의 의지로서 행동하게 되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데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임원선, 2008). 집단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혼자 결정해야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수라는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므로 일단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동일시함으로써 집단정체감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일시적으로 차용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이희경, 2002).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집단의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래동조성은 아동기 중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증가하고, 자율성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기 후기에는 줄어든다고 하였다(전주연 등, 2004). 또래집단 내의 우정관계 패턴과 필연적으로 동조가 존재하는 집단속성을 통해 유추해볼 때,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정서적 친밀감과 함께 압력과 동조로 인한 갈등을 동시에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또래동조성은 집단따돌림의 발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유지시키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전주연 등, 2004). 이훈구(1999)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동조성향과 공격성은 10대 청소년 집단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이 현상이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지다가 중학교에서 절정을 이룬 후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박정은(2002)은 또래동조성은 집단따돌림 가해경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는데 집단따돌림의 여러 형태 중 무리를 지어 한 친구를 소외시키는 행동은 관계적 공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또래동조성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는 반면(박진홍, 200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또래동조성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김은진, 2001; 오경희, 1990)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아직 우정관계와 관련된 변인 중 질투와 또래동조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다. 하지만, 우정관계 질투를 자주 표현하게 되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며(Walter & LaFreniere, 2000), 우정관계 질투로 인해 또래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Louw, Ede, & Louw, 2007; Parker & Walker, 2003; Walker & Parker, 2001), 우정관계에서 또래들로부터 질투심이 높다는 평판을 가진 청소년은 또래들로부터 낮은 지지와 수용을 받게 된다(Parker, Rubin, Erath, & Wojslawowicz, & Buskirk, 2006; Walker & Parker, 2001)는 연구에 기초했을 때 우정관계 질투와 또래동조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alisch, 2001; Shulman, Laursen, Kalman, & Karpovsky, 1997). 또한 또래동조성은 집단 내 압력,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이회경, 2002; 전주연 외, 2004; Brown, Clasen, & Eicher, 1986; Haun & Tomasello, 2011), 또래에 대한 신체적, 간접적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다(정덕순, 2008; Costanzo, 1970; Huntley & Owens, 2006; Shulman 1995)는 연구에 기초했을 때 또래동조성은 부정적인 우정관계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주연 등(2004)은 집단따돌림은 동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현상으로 동조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우정관계 질투로 인한 긴장감은 동조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Rawlins, 1992). 따라서, 동조성향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중학생 시기(이훈구, 1999)의 우정관계 질투가 또래동조성과 관련하여 또래

집단 내에서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우정관계 질투의 부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국내 논문은 매우 소수이며(배재현, 최보가, 2006, 2007), 다루고 있는 관련 변인이 공격성이나 자존감, 우울, 애착 등과의 관계 탐색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배타적인 속성을 지녀 쉽게 질투정서에 노출되기 쉬운 여학생의 우정관계를 다루는 연구 또한 미미하다. 배재현과 최보가(2006)도 우정관계 질투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라는 행동반응을 유발하는 동기나 상황해석이 중요하며 우정관계 질투로 인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1학년은 청소년 초기로 정서이해와 표현, 타인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한 질투심 및 부적절한 질투표현에 대한 관리를 위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배재현,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여중생들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을 매개하는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에 대한 탐색은 학교현장에서의 왕따나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고 더불어 여중생의 우정집단 내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생활지도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중생의 우정관계질투, 의도귀인,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2) 여중생의 우정관계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3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성친구 간에 발생하는 우정관계 질투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남녀 혼합 학급이 아닌 여학생 학급에 속하거나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정하였다.

측정도구

우정관계 질투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우정관계 질투정서 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FJQ)를 배재현(2007b)이 수정 및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성친구를 말한다. 토론수업시간에 2명씩 조를 짜려고 한다. 내가 ○○에게 같은 조를 하자고 말하기도 전에, ○○는 우리 반의 다른 친구와 같은 조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질투심을 안 느낀다(1점)’에서 ‘매우 질투심을 느낀다(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배재현의 연구에서 우정관계 질투정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우정관계 질투의 신뢰도(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모호 상황에서의 의도귀인

모호한 상황에서의 의도적 귀인 경향을 측정하

기 위해 Crick(1995)의 자기보고형 가설적 상황도구(hypothetical situation instrument)를 김은경(2008)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열 개의 장면이 등장하는 상황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를 걷다가 아는 애들 두 명을 보고 내가 “안녕?”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대답 없이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면에 대한 상황 이야기가 먼저 문장으로 제시되고 그 모호한 사건에 대해서 의도적 귀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각각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10문항이고 각 문항은 ‘절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1점)’에서 ‘분명 일부러 그런 것 같다(4점)’까지 4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귀인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은경이 보고한 이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도적 귀인의 신뢰도(Cronbach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또래동조성

오경희(1990)의 자기보고형 또래동조성 척도를 김은진(2001)이 시대적 변화에 맞게 수정하고 이희경(2003)이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자오락실’과 같은 용어를 ‘PC방’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8문항은 ‘중립적 행동(neutral behavior)’ 8문항은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립적 행동이란 한 학생이 일상적인 어떤 활동을 더 좋아할 때 또래들이 그에게 다른 활동에 그들과 합류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스포츠, 취미, 오락, 멋, 먹을 장소 등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고, 반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

칙을 위반하는 등 수행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행동을 또래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거짓말, 도둑질, 기물파손, 비행 등이 포함된다. 반사회적 행동은 비행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일반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이회경(2003)의 경우와 같이 '중립적 행동'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의 친한 친구 몇 명'이 어떤 활동에 참가할 것을 종용할 때 응답자가 친구의 제안에 따라 그 활동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대답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교가 끝난 후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PC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한 게임씩 하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한 게임하고 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이다. 이회경의 연구에서 중립적 행동 상황의 동조성향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0이었다. 본 연구에서 또래동조성의 신뢰도(Cronbach α)는 .70으로 나타났다.

을 사용하였다. 또래 갈등척도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척도가 외현적인 공격적 특성만을 포함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에서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차원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척도이다.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차원(반응적 관계적, 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주도적 외현적)을 포함하고, 각 차원마다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다」 등이다.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확실히 그렇다(3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Crick과 Grotpeter(1995)의 경우와 같이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 간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두 유형의 공격성이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한영경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90,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 α)는 .92, 공격성 전체의 신뢰도(Cronbach α)는 .94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ons와 Frick(2004)이 제작한 자기 보고형 또래 갈등척도를 한영경(2008)이 번역한 것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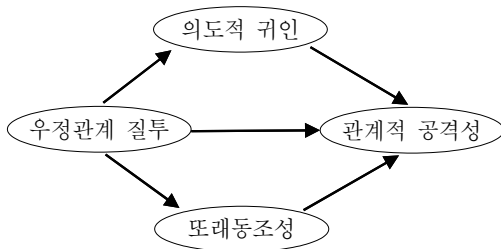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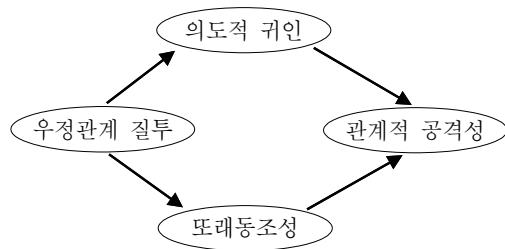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는 연구모형과, 그림 2와 같이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10년 5월 중 울산광역시 소재한 3개의 중학교 내 13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은 뒤 해당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 등을 설명한 후 약 45분 동안에 걸쳐 질문지 내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검사 실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모두 547부를 배부하였다. 응답자 547명의 데이터 중에서 5문항 이상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52명을 제외한 495명의 데이터로 일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이하게 작거나 큰 자료값인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학생 16명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479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중생들이 지각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공격성을 제외하고 다른 3개의 변인은 연구자가 임의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합계를 지표변수로 사용할 경우 측정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측정된 것으

로 가정되어, 구조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인 측정오차를 제외한 순수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변인, 우정관계 질투, 의도적 귀인, 또래동조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므로 Bandalos와 Finney(2001)의 제안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각 변인별로 3개씩의 지표변수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측정오차가 감소되고 자료의 연속성 및 정상성이 확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우정관계 질투는 4문항, 4문항, 3문항으로 나눈 후 각각 질투1, 질투2, 질투3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점수 합계를 구하여 지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의도적 귀인의 경우는 3문항, 3문항, 4문항으로 나눈 후 귀인1, 귀인2, 귀인3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점수 합계를 구하여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8문항으로 이루어진 또래동조성의 경우는 3문항, 3문항, 2문항으로 나눈 후 각각 동조성1, 동조성2, 동조성3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점수 합계를 구하여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Curran, West와 Finch(1996)의 제안에 따라 자료의 정상성부터 확인하였다. 자료의 정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skew>2, kurtosis>10이다.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kew 값은 1.926이하이고 kurtosis 값은 4.341 이하이므로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정상분포에서 크게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상분포를 가정하고 모수치를 추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χ^2 대신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모형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로 포함관계(nested relationship)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Brecker, 1990)

결 과

우정관계 질투와 의도적 귀인, 또래동조성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우정관계 질투와 의도적 귀인, 또래동조성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우정관계 질투는 의도적 귀인($r=.349$), 또래동조성($r=.247$), 외현적 공격성($r=.199$), 관계적 공격성($r=.361$), 공격성 전체($r=.314$)와 정적인 상관

표 1. 자료의 정상성 평가

변수	최소값	최대값	skew	t값	kurtosis	t값
관계적 공격성	0	52	1.308	11.684	1.446	6.458
외현적 공격성	0	39	1.926	17.210	4.341	19.392
동조성1	2	18	-.032	-.288	-.200	-.892
동조성2	2	18	-.310	-2.770	-.022	-.098
동조성3	2	12	.092	.823	-.346	-1.544
귀인1	3	26	-.648	-5.794	1.319	5.891
귀인2	3	12	.160	1.430	-.151	-.673
귀인3	4	16	-.062	.557	.184	.823
질투1	4	20	.658	5.878	-.112	-.500
질투2	4	20	.471	4.206	-.437	-1.951
질투3	3	15	.432	3.862	-.650	-2.903
Multivariate					17.024	11.016

표 2. 우정관계 질투, 의도적 귀인, 또래동조성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N=479)

	1	2	3	4	5	6
우정관계 질투	-					
의도적 귀인	.349***	-				
또래동조성	.247***	.181***	-			
외현적 공격성	.199***	.286***	.231***	-		
관계적 공격성	.361***	.340***	.321***	.688***	-	
공격성 전체	.314***	.343***	.305***	.900***	.935***	-

*** $p < .001$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의도적 귀인은 또래동조성($r = .181$), 외현적 공격성($r = .286$), 관계적 공격성($r = .340$), 공격성 전체($r = .343$)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또래동조성은 외현적 공격성($r = .231$), 관계적 공격성($r = .321$), 공격성 전체($r = .305$)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이 부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공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는 연구모형과,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이들 두 모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알아보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3,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3과 같다. 경쟁모형은 그림 4, 경쟁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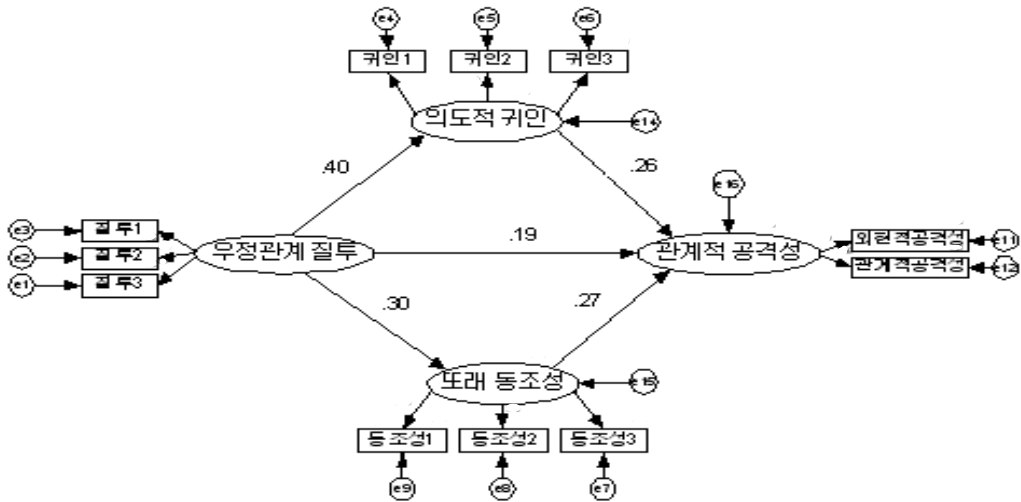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표 3.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우정관계 질투 ⇒ 의도적 귀인	.138	.396	.019	7.270***
우정관계 질투 ⇒ 관계적 공격성	.284	.191	.079	3.581***
우정관계 질투 ⇒ 또래 동조성	.145	.302	.028	5.279***
의도적 귀인 ⇒ 관계적 공격성	1.091	.256	.242	4.497***
또래 동조성 ⇒ 관계적 공격성	.823	.266	.184	4.46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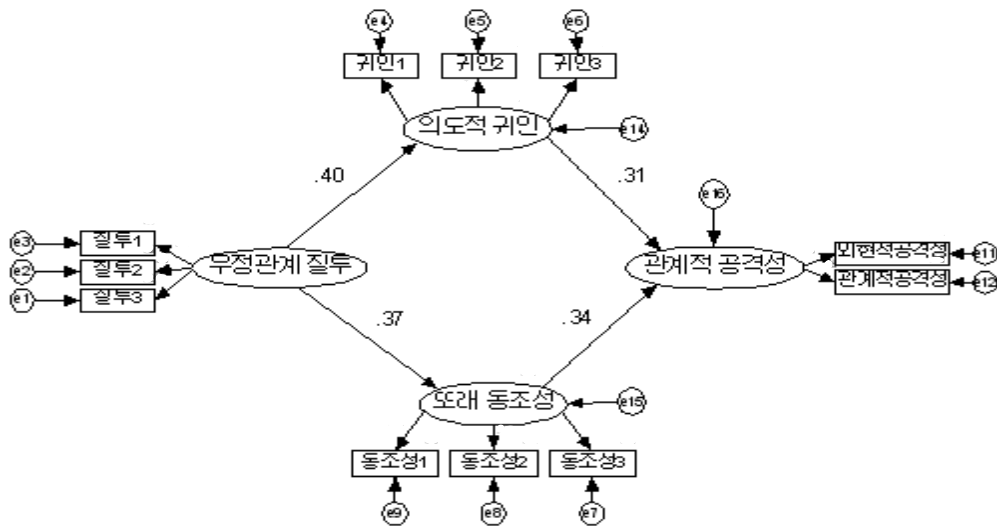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표 4. 경쟁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우정관계 질투 ⇒ 의도적 귀인	.141	.403	.019	7.481***
우정관계 질투 ⇒ 관계적 공격성	-	-	-	-
우정관계 질투 ⇒ 또래 동조성	.165	.365	.026	6.248***
의도적 귀인 ⇒ 관계적 공격성	1.599	.314	.286	5.594***
또래 동조성 ⇒ 관계적 공격성	1.338	.339	.245	5.469***

*** $p < .001$

본 연구에서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적합한 모형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부합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본 연구에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적합도지수인 CFI, TLI, RMSEA에서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을

매개로 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모형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은 17.368이며, 자유도의 차이값은 1로, 자유도 차이 1에 대한 χ^2 차이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χ^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복잡한 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간단한 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우정관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부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76.794	39	.985	.978	.045
경쟁모형	94.162	40	.979	.971	.052

계 질투가 의도적 귀인과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정관계 질투가 의도적 귀인에 미치는 효과($a=.138, p<.001$)와 의도적 귀인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b=1.091, p<.001$)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의도적 귀인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Sobel test(1982)를 시행하였다. 또, 의도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b* 값에 대하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효과 *ab*는 .151이고, $Z=3.804$ 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8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하였다. 즉,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귀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정관계 질투가 또래동조성에 미치는 효과($a=.145, p<.001$)와 또래동조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b=.823, p<.001$)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또래동조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효과 *ab*는 .119이고, $Z=3.349$ 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하였다. 즉, 우정관계 질

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동조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정관계 질투, 의도적 귀인,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첫째, 우정관계 질투는 의도적 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중생이 우정관계 질투를 경험하면 모호한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하여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잘못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합리성보다는 선입견, 기대, 자기관여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질투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거나 (Lavallee, Parker, & Walker, 2002) 우정관계 질투 정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우정관계 질투가 상황을 평가하는 변인인 의도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배재현, 최보가, 2006,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부적응적인 질투표현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타인의 요구에 친사회적으로 응답하기 어렵게 한다(배재현, 최보가, 2006).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을 정당한 상황으로 지각할수록 낮은 질투수준을 보였고 고의적인 상황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질투수준을 보였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는 또래동조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속집단의 압력에 따르는 것 즉, 설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또래동조성이 유발되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우정관계 질투와 또래동조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없으나 배재현과 최보가(2007)의 연구에서 우정관계 질투가 높을수록 또래거부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우정관계 질투와 또래동조성의 관계에 대한 유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래거부는 또래동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우정관계 질투와 또래동조성의 관련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셋째, 우정관계 질투는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 상황은 직접적인 공격행위뿐 아니라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 즉,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삼자를 조정하거나,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행동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특정인이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도록 하는 등의 관계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로 인해 제삼자와 새로운 우정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기존의 친구를 무시하거나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Roth, 2002)와, 질투가 또래거부나 관계갈등과 폭력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Hansen, 199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냉정을 유지하는데 숙련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상황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우정관계지속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직접적인 공격인 반응적, 주도적 공격보다는 간접적인 공격인 관계적 공격을 함으로써 우정관계를 조정하고자 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배재현, 최보가, 2006)도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정관계 질투 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며(배재현, 2007), 질투심이 유발되는 상황은 개인에 따라 공격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Buunk, 1982)와도 맥을 같이 한다.

넷째, 의도적 귀인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이 친한 친구나 제3자와 같은 타인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타인비난전략을 선택하면,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기 위해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관계적 공격성을 이끈다는 배재현, 최보가(2006)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또래동조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또래동조성이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또래동조성은 신체적 공격행동, 간접적 공격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정덕순(200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정관계 질투가 의도적 귀인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델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제3

의 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델을 말한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 자체가 관계적 공격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의도적 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의도적 귀인은 우정관계 질투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정관계 질투가 의도적 귀인을 일으키고, 유발된 의도귀인이 또 다시 원인이 되어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질투가 유발되어 표현되는 과정에서 외적 상황 자체가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질투가 인지, 정서, 행동적인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기 때문에 질투가 유발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빠르고 직관적인 인지과정이 선행되고 이후의 질투 강도와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는 Novaco(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높은 질투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반추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Lavalley, Parker와 Walker(2002)의 연구나, 질투를 자극하는 상황이 유발되면 삼자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때 인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동적인 반응이 달라진다고 한 White(199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우정관계 질투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친한 친구나 제3자와 같은 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타인비난전략을 선택하면, 타인의 사회적 관계에 손상을 주기 위해 또래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또래 간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관계적 공격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배재현과 최보가(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우정관계 질투가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 자체가 관계적 공격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래동조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또래동조성은 우정관계 질투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정관계 질투가 또래동조성을 일으키고, 유발된 또래동조성이 또 다시 원인이 되어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통해 상대를 독점하고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우정관계 질투 정서가 친구들 간에 경험하는 최고의 긴장감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Parker, Walker, & Gamm, 2002; Rawlins, 1992)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중학생의 동조성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동조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전주연 등, 2004)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아가 괴롭힘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에 동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최지영과 허유성(2008)의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Brendt(1982)가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년기는 우정관계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우정을 친밀감, 신뢰, 상호 존중과 같은 심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관계라고 언급과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높아 친구가 중요한 행복구성요인으로 나타나는 연령대이며(전경숙, 정태연, 2009),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더욱 높게 지각하며 어느 연령대보다 우정관계 질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여겨진다. 초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여중

생들은 인지·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에 있고 또래관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 위험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자료에서 중학생이 또래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진, 1999). 여중생들은 또래관계나 우정관계에 매우 민감한 연령대이면서 관계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여중생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관계적 공격성이 야기될 수 있고, 왕따나 집단따돌림이라는 심각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우정관계 질투가 인지적 요소인 의도귀인 및 또래동조성과 상호작용하여 유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접근은 귀인과정과 또래동조성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왜곡이나 결함을 수정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 상황을 해석하는 인지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해 줌으로써 지나치게 부적합한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 타인의 입장 및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능력 등과 같은 통합적인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 동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에 아무런 비판 없이 따르는 동조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필요하다. 관계적 공격에 대한 동조현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논리에

의해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 분석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자기주장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도록 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생각이 제안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질투의 감정은 인간 본연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질투의 감정을 무조건 억압·억제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 여중생들이 친한 친구와 우정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면 질투 감정이 유발된다 하더라도 부적응적인 질투 표현을 적게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정관계 질투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질적인 측면을 병행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우정관계 질투 상황에서 제삼자가 자신의 친구관계를 깨뜨릴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질투가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우정관계의 질적인 안정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질투상황이라 할지라도 유발되는 질투의 강도나 그에 대한 반응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중생들은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질투 유발 상황을 우정관계 상실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질투의 강도나 반응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 측정 방법과 함께 또래보고 및 부모나 교사에 의한 측

정방법을 병행하거나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질투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또래나 교사들로부터의 폭넓은 사회적, 행동적 측면으로서의 객관적인 평가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의도귀인을 매개로 일어나는 관계적 공격성 유발 과정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Weiner(1991)에 의하면 사람들은 불쾌한 경험을 하고, 그 원인이 외부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며, 책임이 상대에게 있는 것으로 귀인할 때 분노를 느끼게 되고, 분노에 의해 공격행동을 하게 되는 책임귀인-분노-공격행동의 경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영애와 정현희(2002)도 그들의 연구에서 의도귀인으로 인해 바로 공격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과정을 거치는 의도귀인-분노-공격행동의 경로를 설명하였다. 물론 비공격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임승렬(1996)의 연구에서처럼 의도귀인-공격행동의 경로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도귀인을 매개로 공격성이 유발되는 매커니즘 가운데 개입될 수 있는 정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가능한 대안모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집 방법의 문제로 일정한 지역의 여중생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표집 지역을 광범위하게 하고 표집 대상도 여중생뿐 아니라 여고생들까지도 다루어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여학생들을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정관계 질투와 의도귀인, 우정관계 질투와 또래동조성 간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른 연구와 비교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우정관계에 관한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만 한정되어 왔으며 우정관계 질투에 관

한 국내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부족한 우정관계 질투 정서를 다루었다는 것과 우정관계 질투 정서로 인한 의도귀인이나 또래동조성의 매개 역할을 처음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는 우정관계 질투와 관련된 열등감, 소유욕구 등 다양한 정서적 변인들을 다루어보는 것은 물론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진 (1999). 바로 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 삼신각
- 김은경 (2008).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적 편향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은진 (2001).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또래동조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3).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95-104.
- 박민정, 박혜원 (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4(3), 79-89.
- 박정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홍 (2000). 초등학생의 자기, 부모, 교사지각과 학업성적에 따른 동조성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재현 (2007a). 우정관계 질투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39-56.
- 배재현 (2007b).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배재현, 최보가 (2007).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동학회지, 28(3), 19-44.
- 신재은 (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3-165.
- 안도용 (1995). 적대감과 과제에 대한 개입수준이 의도성귀인, 분노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희 (1990).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원, 김중술, 신민섭 (2003). 자기개념 위협이 편집성향자의 주의 및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0), 71-91.
- 이영애, 정현희 (2002).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따른 공격행동유발경로의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9(2), 87-111.
- 이은혜 (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87.
- 이훈구 (1999). 학교폭력: 그 현황과 대책. 서울 법문사.
- 이희경 (2002). 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 지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6(4), 23-40.
- 이희경 (2003). 문화성향·공감과 동조가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7(4), 1-24.
- 임승렬 (1996).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귀인과정의 시간적 경로분석. 인간발달연구학회지, 3(10), 76-91.
- 임원선 (2008). 청소년 유해환경과 또래집단 내 압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7), 227-241.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전영사.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전주연, 이은경, 유나현, 이기학 (2004). 집단따돌림에 대한 동조성향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23-35.
- 정덕순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의 동조압력과 공격행동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2001). 문화행동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최명선 (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교사, 친구 이미지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229-249.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지영, 허유성 (2008).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유형에 따른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의존성. 청소년학연구, 15(6), 171-196.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최나야 (2004). 초기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상황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363-38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워크샵 교재. Departments of Education and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Averill, J. P.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1145 -1160.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and Schumacker, R. E. (Eds.), *New Development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ndt, T. J. (1978).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iggs, B. K., & Parker, J. G. (2001). *Adolescents Jealousy and Possessiveness of Friends: Social, Behavioral, and Personal Correlat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arch, MN.
- Bre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 -530.
- Buunk, B. (1982). Strategies of jealousy: Styles of coping with extramarital involvement of the spouse. *Family Relations*, 31, 13-18.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ostanzo, P. (1970). Conformity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self-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66-374.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6, 2328-233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odge, K. A. (1987).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Dodge, K. A., & Crick, N. R.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 Child Development*, 51, 162-172.
- Dodge, K. A., & Crick, N. R. (1990).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16, 8-22.
- Garnefski, N.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Problems: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 Non-Clinical Sam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403-420.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1311-1327.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Hansen, G. L. (1991). Jealousy: It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ntegration within family stress theory. In P. Salovey (Eds.)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pp.252-272). New York: Guilford Press.
- Haun, D. & Tomasell, M. (2011). Conformity to Peer Pressur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1), 443-447.
- Hu, L. J.,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ntley, J. & Owens, L. (2006). "I know they are manipulating me..." unmasking indirect aggression in an adolescent girls's friendship group: A case study,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7(4), 514-523.
- Kristen, L. L. (2003). Friendship jealousy and social emotional adjustment: The role of social beliefs and cognitive processes. Retrieved at <http://parker.psych.psu.edu/research/reprints/Lavallee%202003.pdf>.
- Lavallee, K. L., Parker, J. G., & Walker, A. R. (2002). *Friendship jealousy, relational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 Gender difference and pattern of change and stability overtim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XV World Meeting Montreal Canada.
- Lever, J. (1976). Sex differences in the games people play. *Social Problem*, 23, 478-487.
- Louw, D., Ede D. V., & Louw, A. (2007). *Human development*, Cape Town: ABC Press.
- Ludlow, L., Hartmann, D. P., George, T. P., Maianu, C., Abbott, C., & Ward-Anderson, D. (1999). *Reasons for friendship loss as a function of popularity statu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Marsee, M. A., Kimon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K. Monahan & H. J. Steadman(Eds.).

-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arker, J. G., & Low, C.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Rubin, K. H., Erath, S. A., & Wojslawowicz, J. C., & Buskirk, A. A.(2006).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J. Cohen(2nd ed.), *Developmental Psychology: Theory and method*, NJ: John Wiley & Sons. Inc.
- Parker, J. G., Walker, A. R. (2003). Encouraging Adolescent Social Competence: A Praticum. In J. Cohen and L. Yapa(eds.), *A Blueprint for Public Scholarship at Penn State*.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 Parker, J. G., Walker, A., & Gamm, B. (2002). Worlds within worlds: The friendship network context of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Ottawa, Ontario, Canada, August.
- Quiggle, N., Garber, J., Panak, W. F., & Dodge, K. A. (1992).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awlins, W. K.(1992). *Friendship matters*.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Roth, M. A. (2002). *Navigating the minefields of ocial triangles: Adolescents 'reaction their friends'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Pennsylvania State Universty.
- Salisch, M. (2001).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ir relationships to parents, peers, and fri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4). 310-319.
- Shulman S. (1995). *Close relationship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NJ: Norwood.
- Shulman, S., Laursen, B., Kalman, Z, & Karpovsky, S. (1997). Adolescent intimacy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5), 597-617.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 and its relation with chil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 581-600.
- Walker, A. R., & Parker, J. G. (2001). *Does Jealousy Matter?: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Self-and Peer-Reported Friendship Jealous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arch, MN.
- Walter, J. A. & LaFreniere, P. J.(2000). A nationalistic study of affective expression, social competence, and sociometric statu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1(1), 109-122.

Weiner, B. (1991). On perceiving the others as responsible. In R. Dientsbie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38, pp.165-198).

White, G. L. (1999). Jealousy and problems of commitment. In J. M. Adams & W. H. Jones(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itment and relationship stability (pp. 471-480),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1차 원고 접수: 2011. 04. 10

수정 원고 접수: 2011. 05. 18

최종 게재 결정: 2011. 05. 19

Relation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Middle School Girls: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nt Attribution and Peer Conformity

Eun-Sin Sim

Dong-Hu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riendship jealousy on intent attribution, peer conformity, and relational aggression. A sample of 547 students from 3 girls' middle schools in Ulsan wa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this study, a relation friendship jealousy scale, a intent attribution scale, a peer conformity scale, and a peer conflict scale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e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friendship jealous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nt attribution, peer conformity,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otal in aggression. And intent attribu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er conformity,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otal in aggression. Peer conform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otal in aggression. Secondly, intent attribution as well as peer conform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Additionally, friendship jealousy exerts a direct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middle school girls, friendship jealousy, intent attribution, peer conformity, and relational aggression